



회복기에 접어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 경제 맥퀸티 정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학교 및 병원 보호

뉴스

2011년 3월 29일

2011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에 따르면, 맥퀸티 정부는 온타리오 주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올해 예산안 역시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 및 보건의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11년도 적자는 1년 전 예상치보다 30억 달러 적은 16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적자 감소의 주된 이유는 2010-11년도 프로그램 지출이 2010년도 예산의 예상치보다 26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2011년도 예산안의 전략적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고용 및 성장

- 민간부문과의 여러 가지 새로운 협력을 통해 온타리오 주 내에서 약 10,000 개의 일자리가 창출 및 유지된다.
- 새로운 위험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소, 돼지, 양 및 송아지 축산농을 지원하고, 자가 위험관리 프로그램(Self-Directed Risk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식용 원예농업 부문을 지원한다.

교육의 보호

- 2015-16년도까지 온타리오 주 내 전문대 및 종합대 신입생 정원을 60,000여 명 늘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
- 올해 9월에 추가로 20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이 실시되어 최고 50,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약 600개 학교가 최고 35,000명의 아동에게 전일제 유치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보건의료의 보호

- 유방암 검진 수혜자를 추가로 90,000명 늘려서 더 많은 고위험 여성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 우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 정신건강 및 중독 전략(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trategy)을 시행한다.
- 온타리오 주 의약품급여 프로그램(Ontario Drug Benefit Program) 수혜자에 대한 약제 서비스 및 지원을 확대하여 처방 후속 진찰 등에서 고령자 및 기타 주민을 지원한다.

책임 있는 관리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동안 온타리오 주 주민이 얻은 이득을 위협하지 않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 운영 방식을 더한층 개혁해야 한다. 최근의 여러 가지 방안과 이 예산안에 발표된 방안은 향후 3년간 약 15억 달러의 절약을 실현해줄 것이다.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온타리오(ServiceOntario)의 현재 운영 방식이 주민에게 최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한다.
- 주요 기관에 2013-14년도까지 2억 달러를 절약하는 목표를 부여한다.
- 이전급여가 지급되는 특정 관리직 고위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을 2년에 걸쳐 영구적으로 10퍼센트 삭감한다. 이 정책은 주요 정부기관에서도 시행된다.
-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Ontario Public Service - OPS) 고용인을 추가로 1,500명 감원한다. 이는 2009년도 예산안에서 발표된 OPS 상근직 고용인 3,400명 감원에 이은 추가적 감원이다.
- 교도소 체계를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쇄신한다. 이용성이 저조한 오웬사운드, 워커턴, 사르니아 등지의 교도소를 폐쇄하고 토론토 서부구치소(Toronto West Detention Centre)를 부분적으로 폐쇄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한다. 재소자는 더 크고 더 효율적인 신축 시설로 이송된다.
- 토론토 서부법원(Toronto West Courthouse) 건축을 취소하여, 향후 3년간 1억 8천 1백 달러의 예산을 절약한다.
- 저명한 경제학자 돈 드러몬드를 위원장으로 한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 개혁위원회(Commission on the Reform of Ontario's Public Services)를 설립하여,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교육 및 보건의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촉진해줄 개혁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2011년도 예산안은 경제를 강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주요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맥킨티 정부의 [오픈 온타리오\(Open Ontario\)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용

“사상 최악의 세계적 경제불황이 닥친 지 2년 된 지금, 우리 온타리오 주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어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한 인력이 온타리오 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투자와 고용을 유치한다.”

— 드와이트 덩컨 재무장관

“우리는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학교와 병원과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계획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면적인 프로그램 삭감은 오히려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온타리오 주 주민이 얻은 이득을 역전시키고 온타리오 주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다.”

— 드와이트 덩컨 재무장관

자세히 알아보기

[2011 온타리오 주 예산안](#)

2011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에 관한 배경 정보:

- [온타리오 주 경제 전망 및 재무계획](#)
- [책임 있는 관리](#)
- [튼튼한 교육과 보건의료가 튼튼한 경제의 발판이 된다](#)

2011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하이라이트:

-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 [아동 정신건강](#)
- [온타리오 주 농가 지원](#)

[정부의 오픈 온타리오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0-

언론사 문의:

Andrew Chornenky, Minister's Office, 416-325-9819
Scott Blodgett, Ministry of Finance, 416-325-0324

ontario.ca/finance-news

Korean

일반인 문의: 1-800-337-7222

(온타리오 주 내 무료 통화)